

광주 확산 최초 감염원은 대전 방문판매 접촉자

광복사 아닌 금양오피스텔서 시작
83번·37번 확진자 대전 왕래
수도권발 대전 거쳐 광주로 전파

광주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방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대전을 거쳐 전파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과 대전시의 허술한 코로나19 방역이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던 광주의 선진 방역시스템마저 붕괴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역전문가들은 "광주에서 아무리 완벽하고 강도 높은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타지역발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면서 "시민 개개인이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만이 대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광주 코로나19 대확산의 시작점은 광주 금양오피스텔 내 방문판매업 관계자인 광주 83번과 광주 37번 확진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6일 대전 지역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했다. 83, 37번과 대전에서 접촉한 확진자들은 이후 감염 상태로 대전과 광주를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광주지역 집단감염과 관련해 수도권·대전발을 확산하는 분위기다. 근거는 광주 확진자와 대전 확진자들이 광주와 대전을 오가며 밀접 접촉한데다, 이들의 코로나19 유전자형도 GH형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GH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대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초 경북 예천 집단감염, 5월 서울 이태원 클럽, 관악구 리치웨이, 대전 방문판매 관련자 등에서 발견됐으며, 이번 광주지역 확진자도 GH형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첫 감염원을 단정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대전과의 연관성은 밝혀진 상태"라며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대전을 거쳐 광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감염원을 배제하지 않고 정밀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현재 발표하고 있는 '광복사발'이라는 표현도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광주 2차 대유행 첫 확진자로 등록된 광주 34번 동선에 광복사가 나오고, 스님이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광복사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 34번 확진자가 발견 순서만 앞섰을 뿐, 정황상 광주 37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주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대전 방문판매업체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광주 37번은 34번과 한방병원을 함께 다녀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37번이 드나든 금양 오피스텔 1001호, 83번이 입차한 505호 등을 매개로 34번(광복사), 45번(제주 여행), 48번(광주 사랑교회), 46번(요양병원), 92번(일곡중앙교회) 등 집단감염이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류소연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37번의 동선을 보면 아무래도 34번보다 먼저 감염되지 않았겠냐고 추정한다"며 "37번보다 며칠 후에 확진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83번 확진자도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감염돼 무증상인 상태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대전 내 집단감염과 관련해 수도권발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광주보다 10여일 앞선 지난달 15일부터 유행을 시작한 대전 감염사태는 지난달 5일 대전 60대 여성이 수도권 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확진자 3명과 연달아 접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대전 방문 관련 유전자 분석결과, 100% 수도권 방문업체 확진자에서 발견된 GH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고된 8일 오전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복구보건소 의료진들이 냉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나흘만에 시민 이동량 39% ↓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 이후 시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광주시의 지난 5일 '휴대전화 이동량'이 57만7000건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정 전인 지난 1일(94만8000건)보다 39.1%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시민의 거주지역 이외 방문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 한 이동통신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이용자가 거주 중인 행정구역(시·군·구)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1건으로 집계한다. 앞서 광주시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 며칠간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외 유행 우려가 나왔다. 광주시는 7월 2일부터 사회적 거

리 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다중 이용시설·모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한 첫날인 7월 2일에는 휴대전화 이동량이 85만2000건으로 전일보다 10.1% 줄었다. 또 3일엔 84만9000건, 4일엔 77만건, 5일 57만7000건을 기록하는 등 이동량 감소세가 뚜렷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막오른 민주 당권경쟁... 이낙연·김부겸 본격 당심잡기

이, 세미나·포럼 참석 세물이
김, 이틀째 호남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8일 본격적인 당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출마 선언을 한 이낙연 의원은 이번 주에는 대세론을 기반으로 당내 세물이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익표 의원 주도로 열린 '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세미나 축사를 한 데 이어, 곧바로 인근에서 열린 지지체장 경력 의원·단체장 모임인 '저지와 균형 포럼'에 참석했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 의원은 이 포럼 상임고문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당내 의원들과 스

김집을 강화하며 당내 지지세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방문 등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반 국민의 50% 이상, 당원의 70% 이상이 이낙연이(당 대표) 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출마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는데 대해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공수처법)은 지키는 것이 옳다. 국회의 의결을 승복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며 표심을 공략했다. 영남권 잠요로 분류되는 그로서는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초기에 파고들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청에 위치한 자동차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북도의회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한 뒤 전주 남부시장에 찾아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민주당사를 찾아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출마선언식을 할 예정이다. 세 불리기 중인 이 의원에 맞서 당내 주요 인사들의 캠프 영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문화예술계의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나 끝날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9) 기다림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더 가까이 보아서인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침체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예술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더구나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간신히 활동을 재개하려던 문화예술계에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술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그렇듯 예술은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모험지기 관객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이어서 관객들과 만나지 못하고 대기실에

서 허업없이 기다리듯 잠시 멈추어야 하는 현상이 안타깝기만 하다. 에드가 드가(1834-1917)의 작품 '기다리는 발레리나' (1882년 작)를 보면 춤출 차례를 기다리는 발레리나의 모습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는 문화예술인들의 상황과 겹쳐진다. 무용은 '춤으로 시대를 사유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드가는 발레리나의 울동과 군집을 놀라울 정도의 독창적인 구도로 배치해보면서 연구했고 전혀 다른 공간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 모습, 대기하는 모습, 무용화의 끈을 매는 모습,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한 몸짓들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그림에서 드가는 가히 '무희들의 화가'라 할 만한 시대의 걸작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속 발레리나는 왼손으로 발목을 마사지하듯이 꼭꼭 누르며 매만지고 있는데, 기다림이 초조해서일 수도 있고 수

고했을 다리가 안쓰러워 위로하는 손짓 일 것도 같다. 드가의 그림 속 발레리나의 곁에는 어머니들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문을 보고 있거나 무심하게 딸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는 동서고금에서 변함없는 것 같다. 발레리나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 못지않게 우리 모두 발레리나가 무대 위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이 되기를 마음 모아본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D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